

신반포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8학년도 9월 19일 1교시	출제자	이정일, 임동미		
		반 번호:	이름:		

※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선택형은 OMR카드에, 서술형은 서술형 답안지에 작성하세요.

[1~4, 서술형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 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 때에 '잊었노라'

(나)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①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⑥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⑦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④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⑤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번 텅 자리에
⑧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1. (가), (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수사법이 쓰인 것은?(3점)

- 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 ②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 ③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④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⑤ 가을에는 /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검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2.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2점)

- ① 4음보를 통해 민요적 율격을 느끼게 한다.
- ② 은유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여 애절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역설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모순된 표현이나 내면적으로는 진실성을 가진 것을 두 개 고르면?(3점)

- ① 님은 죽었지만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 ②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③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④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갭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 ⑤ 풀이 눕는다. /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
풀은 눕고 / 드디어 울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개 고르면?(2.5점)

- ① ㉠ :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눈의 끊임없는 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 의태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 ③ ㉢ :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 ④ ㉣ : 순간적인 첫사랑을 직유법을 통해 잘 표현하고 있다.
- ⑤ ㉤ : 직유법을 사용하여 눈의 순수한 마음을 비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 뒷면에 계속

<서술형 1>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8점)

눈이 나무에 꽃/눈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

(1) 누군가를 () 위해 ()없이 ()하는 모습

봄이 오면서 나뭇가지에 봄꽃이 피어남.

→

(2) () ()을 이름.

<조건> 가. 제시된 형식에 맞게 전체 문장을 다 쓸 것
나. 괄호 안에는 한 단어만 사용하여 쓸 것.

<배점> 가. (1), (2) 중 하나만 정답일 경우 : 4점
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 각 1점 감점
다.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맥이 이상할 경우 : 각 1점 감점

[5~6, 서술형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 양반은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양반은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還穀)을 꾸어다 먹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 섬에 이르렀다.

(나)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 양반이 아니므로 말이 있어도 말을 타지 못한다. 또한 양반만 보면 굽실거리며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뜰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고,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한다.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다고 한다.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양반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 보자.”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환곡을 갚았다.

(다) 군수는 양반이 천 섬이나 되는 환곡을 모두 갚자 몹시 놀랐다. 군수는 환곡을 갚게 된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에 양반이 병거지에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小人), 소인.’ 하며 자신을 낮추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양반은 감히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라) 양반이란 여러 가지로 일컬어진다. 글을 읽으면 선비라 하고, 벼슬을 하면 대부(大夫)라 하고, 덕이 뛰어나면 군자라고 한다. 무관은 서쪽에 늘어서고 문관은 동쪽에 늘어서는데, 이것이 바로 양반이다. 따라서 선비, 대부, 군자, 무관, 문관 가운데에서 종을 대로 부르면 된다.

더러운 일을 딱 끊고, 옛사람을 본받고, 높은 뜻을 가져야 한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등잔을 켜고서, 눈은 가만히 코끝을 내려 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얼음 위에 박 밀듯이 “동래박의(東萊博義)”를 줄줄 외워야 한다.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견디며, 가난 타령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어금니를 딱딱 미주치고 뒤통수를 툭툭 두드리며, 침을 입안에 머금고 가볍게 양치질하듯이 삼켜야 한다. 소맷자락으로 털모자를 닦아 먼지를 털어 내어, 모자에 물결무늬가 뚜렷하게 해야 한다. 세수할 때는 주먹으로 비비지 말고, 입 냄새가 나지 않게 이를 잘 닦아야 한다. 소리를 길게 뽑아서 종을 부르며, 신발을 땅에 끌듯이 느릿느릿 걸음을 옮겨야 한다. “고문진보(古文眞寶)”, “당시품휘(唐詩品彙)”를 깨알같이 베껴 쓰되, 한 줄에 백 자씩 써야 한다.

(마) “양반이라는 게 겨우 요것뿐입니까? 저는 양반이 신선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걸요. 원하옵건대 제게 이익이 되도록 문서를 고쳐 주십시오.”

(바) 문과의 홍패(紅牌)는 팔뚝만 하지만, 여기에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야말로 돈 자루이다. 서른에야 진사가 되어 첫 벼슬을 얻더라도, 오히려 이름난 음관(蔭官)이 되어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다. 언제나 종들이 양산을 받쳐 주므로 귀밀이 희어지고, 설령줄만 당기면 종들이 ‘예이.’ 하므로 뱃살이 처진다. 방에서는 귀걸이로 치장한 기생과 노닥거리고, 뜰에서는 남아도는 곡식으로 학(鶴)을 기른다. 벼슬을 아니하고 시골에 묻혀 살더라도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먼저 자기 논을 갈고, 누가 감히 나에게 대들겠느냐? 네놈들 코에 잣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덩이를 잡아 휘휘 돌리고, 귀밀 수염을 다 뽑아도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겠느냐?

(사) 부자는 증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둘렀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먼.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 버렸다.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 다음 장에 계속

5. 이 글에 주로 사용된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2.5점)

- ① 본래의 의도를 숨기고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 ② 두 대상을 비교·대조하여 두 대상의 본질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 ③ 순수한 우리말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고 있다.
- ④ 겉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한 말을 함께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합당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개인 또는 사회의 악덕, 모순, 어리석음 등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고 있다.

6.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개 고르면?(3점)

- ① 조선 전기 사회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 ② 박지원의 사상이 잘 나타나는 한글 소설이다.
- ③ 실학을 바탕으로 중국 소설을 모방한 소설이다.
- ④ 당시 지배 계층의 부정부패가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군수가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서술형 2> 이 글에 나타난 당시 시대적 상황 두 개를 서술 하시오.(8점)

- (1) : ‘~의 동요’
- (2) : ‘~한 ~과 ~인 ~의 등장’

<조건> 제시된 형식에 맞게 전체를 다 쓸 것

<배점> 가. (1), (2) 중 하나만 정답인 경우 : 4점

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 각 1점 감점

다.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맥이 이상할 경우 : 각 1점 감점

<서술형 3> 이 글에서 (마), (사)에 나타난 부자의 반응을 볼 때 (라)와 (바)는 양반의 어떤 점을 풍자하는지 쓰시오.(8점)

- . (라) : ‘~하며 ~하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 . (바) : ‘~을 이용하여 ~한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조건> 제시된 형식에 맞게 전체 문장을 다 쓸 것

<배점> 가. (라), (바) 중 하나만 정답인 경우 : 4점

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 각 1점 감점

다.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맥이 이상할 경우 : 각 1점 감점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는 산속에 살면서 바둑 두기와 통소 불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바람결에 들으니 상공께서도 나와 같이 풍류를 즐기신다 하더군요. 상공의 숨씨를 한번 뵙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상공은 대적할 사람을 찾지 못해 늘 아쉬워하던 터라, 박 처사의 말을 듣고 마치 신선을 만난 듯 가슴에 기쁨이 넘쳐흘렀다.

“신선과 인간의 길이 서로 다른데 이렇게 찾아 주시니, 반가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숨씨로 어찌 신선과 바둑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며, 신선의 통소 소리에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검손이 지나치십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공의 재주를 보여 주시지요.”

(나) **객:** 그대는 이미 급제하였소?

나: 아닙니다. 과거 공부는 꽤 괴롭지요. 일찍이 향시(鄕試)에서 한 번, 지방에서 치르는 생원과 진사 시험에서 두 번 장원을 했습니다. 초시(初試)에서 세 번을 급제했으나, 복시(覆試)에서는 매번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향시는 쉽지만 한양에서 치르는 과거가 어려운 줄은 압니다.

객: 아! 그대의 재주로도 아직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니요!

나: 내 진정 실력이 없어서이지요. 정말 글재주가 있다면 어찌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겠습니까?

객: 허, 그렇지 않소. 과거 시험의 비리가 요즘처럼 심한 적이 없었지요. 권문세가의 자손은 갓 공부를 시작한 어린애라도 다 시험에 합격하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시골 유생은 머리가 세도록 공부한 대가(大家)라도 오히려 시험에서 떨어지곤 했지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이백과 두보에 버금가는 글재주를 지녔으니, 대과(大科)라면 몰라도 어찌 소과(小科)에 합격하지 못하였겠소?

(다) **혜리:**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재수가 없지? 같이 떠들어도 나만 질려서 혼나고.

인선: 그야 당연하지.

혜리: 무슨 소리야?

인선: 넌 목소리가 뭐랄까…… 좀 튀어. 어른들 표현대로 하자면 질그릇 깨지는 소리 같아. 그러니까 같이 떠들어도 네 목소리밖에 안 들리지.

혜리: 뭐? 뭐 깨지는 소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러는 네 목소리는 좋은 줄 알아?

인선: 거기서 내 목소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 데? 생각해서 알려 주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 뒷면에 계속

7. (가)~(나)에서 알 수 있는 오늘날 계승해야 할 전통 말 문화로 적절한 것으로만 묶은 것은?(2.5점)

< 보기 >

- ㉠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 ㉡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에는 정중하게 말한다.
- ㉢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할 때에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
- ㉣ 상대방이 자신을 칭찬할 때에는 자신의 장점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다.
- ㉤ 상대방을 칭찬할 때에는 자신의 재주와 비교하며 상대방의 장점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8. (다)의 대화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알맞은 것은?(2.5점)

- ① 대화 중에 필요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충고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있다.
- ③ 건방진 태도로 자신의 장점만 내세우고 있다.
- ④ 상대방의 단점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 ⑤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9~12, 서술형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 침지에게는 오래간만에 도 닦은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안에 (거기도 문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차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하여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 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東光學校)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나)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 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雨中)에 우장(雨裝)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벽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켜기었다. 앞집 마마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은 그 뻘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다 애걸하는 빛을 띠며, “오

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깃소리같이 중얼거리며 숨을 걸그렁걸그렁하였다.

(다) “인력거를 타시랍시요?” 한동안 값으로 승강이를 하다가 육십 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였다. 인력거가 무거워지매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그리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몸은 다시금 무거워졌건만,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 온다.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어 이제 여행을 바랄 여유도 없었다.

(라) “이 원수엿든! 이 육시를 할 돈!” 하면서 팔매질을 친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며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쟁하고 울었다. 곱빼기 두 잔은 또 부어질 겨를도 없이 말려 가고 말았다. 김 침지는 입술과 수염에 붙은 술을 빨아들이고 나서 매우 만족한 듯이 그 술잎 송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또 부어, 또 부어.” 라고 외쳤다.

(마) 김 침지는 취중에도 설령탕을 사 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중략) 쿨룩거리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리는 — 깨뜨린다느니보담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짹짹 하는 그윽한 소리 — 어린애의 젖 빠는 소리가 날 뿐이다. (중략)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이년.” 이라고 고향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향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 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 버리려는 ㉠인 까닭이다.

(바) “이년아, 말을 해. 말쑤 입이 붙었어?” “…….” “으응,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 “이년아, 죽었던 말이나, 왜 말이 없어?” “…….” “응으,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이러다가 누운이의 흰창이 검은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썹! 이 눈썹! 왜 나를 바루 보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죽은이의 뺨뺨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었다. 문득 김 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이의 얼굴에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 다음 장에 계속

9. 문맥상 (마)의 ㉠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알맞은 것은?(3점)

- ① 궁여지책(窮餘之策) ② 풍전등화(風前燈火)
 ③ 호가호위(狐假虎威)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⑤ 허장성세(虛張聲勢)

10. 이 글에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로 알맞지 않은 것은?(2점)

- ① 전차길 ② 남대문 ③ 육십 전
 ④ 인력거꾼 ⑤ 동광학교

11. (바)에 드러난 김침지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2점)

- ① 일찍 들어오지 않은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
 ② 고지식한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다.
 ③ 자신의 아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비통함을 느낀다.
 ④ 설렁탕을 먹지 못하고 죽은 아내를 원망하고 있다.
 ⑤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

12.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개 고르면?(2.5점)

- ①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은 아내가 죽을 것이라는 암시를 드러낸다.
 ② 추적추적 내리는 비는 작품 전체에 음산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③ 김침지는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 것을 고집하는 전형적 인물이다.
 ④ 대화에서 보이는 비속어는 당시 하층민들의 힘든 생활상을 실감나게 나타내고 있다.
 ⑤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몸이 다시금 무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불안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서술형 4> 소설 <운수 좋은 날>에서 아내에 대한 김침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찾아 쓰고, 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한 바를 서술 하시오.(7점)

- (1) 소재(3점): _____
 (2) 비극적 결말의 의미(4점): _____

<조건> 가. (2)의 답안은 ‘~ 다.’로 끝나게 문장으로 서술 할 것

나. (2)의 답안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게 서술할 것

<배점> 가. 조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각 1점 감점

나.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맥이 이상할 경우 : 각 1점 감점

<서술형 5> 소설 <운수 좋은 날>의 제목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무엇인지 쓰고, 그 표현 방법의 효과를 서술 하시오.(8점)

- (1) 표현방법(4점): _____
 (2) 표현방법의 효과(4점): _____

<조건> (2)의 답안은 (1)에 쓴 표현방법의 정의를 포함 하여 쓰고, ‘~ 다.’로 끝나게 문장으로 서술 할 것

<배점> 가. 조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각 1점 감점

나.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맥이 이상할 경우 : 각 1점 감점

[13~14, 서술형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문왕이 한여름에 높고 밝은 방에 거처하면서 설총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은 오래 내리던 비가 비로소 개고 바람이 시원 하구나. 비록 맛있는 음식과 애절한 음악이 있다 할지 라도, 고상한 담론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울적한 마음 을 푸는 것만 하겠느냐. 그대는 반드시 색다른 이야기 도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 나를 위하여 말해 주지 않 는가?”

“예. 신이 예전에 꽃의 왕인 모란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나) 이 왕을 향기로운 꽃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 하였는데, 봄이 되어 곱게 피어나 온갖 꽃을 능가하여 홀로 뛰어났습니다. 이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곱고 어여쁜 꽃들이 빠짐없이 달려왔지요. 혹시 시간이 늦지나 않을까, 그것만 걱정하며 배알하 려고 하였습니다.

홀연히 붉은 얼굴, 옥 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멋진 옷을 차려입은 이 하나가, 간들간들 걸어와 암전하게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첩은 눈같이 흰 모래밭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 를 마주 보며,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고, 맑은 바람 을 상쾌하게 쐬면서 유유자적하는데,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왕의 홀륭하신 덕망을 듣고, 향기로운 휘장 속 에서 모시고자 하는데, 왕께서는 저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또 한 사내가, 배웃에 가죽띠를 매고 허연 머리에 지팡 이를 짚고, 힘없는 걸음으로 구부정하게 걸어와서 말 했습니다.

‘저는 서울 밖의 한길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푸르고 넓은 들판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의 빗깍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름은 할미꽃이 라고 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 뒷면에 계속

17. 소설 <두 파산>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2.5점)

- ① 정례 부친은 친일파 고위 간부로 정당의 조직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 ② 정례 모친은 욕심이 넘은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서 쓸쓸히 사는 인물이다.
- ③ 교장은 양심적인 학자로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정례 모친을 도와주는 인물이다.
- ④ 김옥임은 인텔리 여성으로 매사에 섬세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인물이다.
- ⑤ 정례 모친은 개학 초에 상점의 만회책(挽回策)을 다시 세우기 위해 교장에게 오만 원을 빌렸다.

18. 소설 <유예>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2.5점)

- ① ‘그(나)’는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죽어 간다.
- ② ‘그(나)’는 국군 소대장으로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사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③ <유예>는 포로가 총살당하기 하루 전을 의미하며, ‘그(나)’가 경험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 ④ ‘그(나)’는 인민군이 아군을 총살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인민군에게 총을 쏘다가 붙잡힌다.
- ⑤ 선임하사는 오랜 군대 생활을 한 인물로 전투가 제일 재미있으며 적의 심장을 겨눌 때마다 희열을 느끼는 인물이다.

19. 소설 <우상의 눈물>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2.5점)

- ① 임형우는 진심으로 기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인물이다.
- ② 이유대는 반장을 하면 성적이 떨어지게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 ③ 기표는 소심한 인물로 강당 뒤편 으스스한 곳에 끌려가 린치를 당한다.
- ④ 답임은 기표의 불우한 가정 형편을 듣고 다른 사람들 모르게 도와주고 있다.
- ⑤ 초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교실에서 일어난 폭력과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 <허생전>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개 고르면?(3점)

- ① 변씨의 아내가 허생에게 성을 내며 경제적 무기력함을 지적함.
- ② 허생은 빌린 돈으로 과일, 말총 등을 매점매석하여 큰 부를 쌓음.
- ③ 허생이 현실개혁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변씨는 이를 모두 거절함.
- ④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변씨가 허생에게 장인바치나 장사를 해 보라고 하지만 허생은 못 하겠다고 함.
- ⑤ 허생이 무인도에 도둑의 무리를 모아 이상적인 마을을 만든 후, 섬을 나올 때 글을 아는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나옴.

21. <호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개 고르면?(3점)

- ① 당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을 좋아하는 북곽 선생과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 ② 아들들은 자기들 어머니 방안에서 북곽 선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의심하고, 그를 여우로 오해한다.
- ③ 북곽 선생은 과부 동리자와 밀회를 즐기고 있었는데, 동리자에게는 성이 다른 아들 다섯이 있었다.
- ④ 범에게 목숨을 빌던 북곽 선생은 범이 간 사실을 알자 때 마침 나타난 농부에게 범의 이야기를 전한다.
- ⑤ 아들들에게 쫓겨 달아나던 북곽 선생은 물 웅덩이에 빠지고, 기어나오던 차에 큰 범 한 마리를 만난다.

-----<끝>-----

※ 선택형 21문항, 서술형 6문항입니다. OMR카드 마킹 여부와 서술형 답안 작성을 꼭 확인하세요.

중간고사 지필평가(점수) (문항 당 배점 : 각 문항에 표기)		합 계 (점수)
선택형(21문항)	서술형(6문항)	
55	45	100

<객관식 정답>

1	④	11	③	21	②, ③
2	③	12	①, ③		
3	①, ②	13	①		
4	①, ⑤	14	③		
5	⑤	15	④		
6	④, ⑤	16	④		
7	①	17	⑤		
8	④	18	③		
9	⑤	19	②		
10	②	20	②, ⑤		

<서술형 답안>

서1	(1)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2) (아름다운) (사랑)을 이룸.
서2	(1) 신분제의 동요 (2) 무능력한 양반과 신흥 세력인 부유한 평민의 등장
서3	(라) 무위도식하며 겉치레를 중시하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바)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서4	(1) 소재 : 설령탕 (2) 비극적 결말의 의미 : 1920년대 가난한 하층민의 생활상을 드러낸다.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불행한 삶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서5	(1) 표현방법 : 반어법 (2) 표현방법의 효과 :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표현하여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서6	왕에게 간사한 무리를 멀리하고 정직하고 충직한 인재를 등용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